

장흥군·(사)함께하는사랑밭, 저소득 아동 공부방 가꾸기



장흥군은 지난 18일 (사)함께하는 사랑밭과 아동 공부방 가꾸기 및 위기가정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5천만 원의 사업

주거 환경·학습 공간이 열악한 12가구 아동가정 방습·창호 등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부방 물품 지원

비 지원을 약속하여 주거 환경과 학습 공간이 열악한 12가구의 아동가정에 도배장판, 창호, 방습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컴퓨터, 책걸상, 옷장, 침대 등 공부방 물품을 지원하여 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갖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에는 5가구의 공부방 가꾸기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 의료·주거·생계비 지원으로 위기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사)함께하는 사랑밭은 후원자들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제도상의 문제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자립 의지를 심어 주고, 새로운 삶을 찾아 주는 데 목적을 둔 복지기관이다.

위기가정 지원, 결연 후원, 해외 긴급 구호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임광심 기획이사는 “생활환경은 성장기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이 안전

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우리 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과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장흥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장흥군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인 만큼 아동의 의견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지원을 위해 장흥을 찾아 주신 (사)함께하는 사랑밭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사)함께하는 사랑밭과 함께 아동이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 가보자”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담양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담양군 노인복지관 지정...현판식 개최

담양군은 20일 치매 대상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담양군 노인복지관(관장 이동운)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사업은 치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 치매 예방에 힘쓰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면 단체의 구성원들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하고, 단체의 자원과 재능을 활용해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담양군 노인복지관은 전 직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했으며, 앞으로 담양군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치매 극복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복 치매안심센터장은 “앞으로도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동참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장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례관리를 위한 인지 꾸러미 전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치매파트너 양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아림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을 통한 치매 환자 가족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에 동참을 원하는 단체, 기업, 학교는 치매안심센터(☎380-2974)로 문의하면 되며, 치매에 대한 궁금증은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전남대학교 봉사동아리, 광주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봉사활동 참여

발달장애 청소년들 대상으로 스포츠 수업 보조 활동 지원

광주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남대학교 미담장학회와 장애아동 스포츠 교실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대학교 미담장학회 봉사단은 장애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아동들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시작한 자발적 봉사동아리로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자원 봉사활동의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수업 보조 활동을 지원한다. 동아리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넓게 펼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터 시작하였고 이후 주기적으로 인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전남대학교 미담장학회 오지훈회장은 “자원봉사활동 기회가 많아져서 코로나 이전에 시행했던 교육봉사가 재개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미란 광주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역 대학생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혈압 측정이 생명을 지킵니다”

5월 혈압측정의 달을 맞이해 곡성군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곡성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을 고려해 혈압측정의 달 캠페인을 7월까

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사망 위험요인 1위인 고혈압의 위험성과 혈압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혈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보건의원원은 지역민들의 혈압

관리를 위해 매주 수요일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실에서 ‘혈관튼튼 관리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혈관 나이를 알고, 숨어 있는 고혈압 위험을 찾기 위한 1:1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과 함께 건강관리 수첩 및 건강관리 용품 제공받을 수도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